

**서대문엔
매거진
2021**

#서대문엔

서대문구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네트워크들을 발견하고 연결하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장르와 형식을 떠나 '우리 동네'만의 문화적 흐름과 일상을 관통하는 모든 예술적 시도를 응원합니다.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과 함께합니다.

서대문엔 매거진 2021

산책자들

08

서대문의 사람들 PEOPLE

함께 10

공동쓰쭈
연희아트페어
호랑이의 정원
비건책방

일상 20

두들페이퍼
맘스아지트
모닥킨 상점
ROLLER

32

참여주체 ID 21

34

호랑이의 뚜벅뚜벅 식물산책

36

서대문엔 × 서동발랄

40

what dogs give you

42

서대문의 공간들 PLACE

공공 44

로컬콘텐츠랩 새로고침
연희문학창작촌
천연동 응달샘 & 하하호호 홍제 마을활력소
청년예술청 SAPY

민간 54

신촌문화관
하늘꿈작은도서관
1M Space
noncontempo와 연희동연구소

64

물가의 놀이꾼

66

2021 #서대문엔 후일담

왜 산책이냐고요

어느 날에, 어느 날처럼 참여주체들의 SNS를 하나하나 염탐하던 바로 그 날에, 많은 팀들이 죄다 산책과 산책의 변주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 그르니에는 수필집 『일상적인 삶』에서 ‘산책’의 궁극적 의미를 ‘거대한 공백’이라 표현한다. ‘들판과 공장과 일터’에서 ‘사냥, 낚시, 채집’에 쫓기지 않는 온전한 여유시간. ‘산책한다’의 궁극적 의미는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일상을 비집고 빈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그 문장까지 떠올리고 나니, 참여자들에게 “부디 성의껏 최선을 다해 실패해주시시오. 원래 하고 싶었던 걸 그냥 하세요. 새로운 일을 부러 만들지 마시고요.” 라고 부탁하며 내심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 ‘빈틈을 찾아내는 산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죄수들이 하는 강요에 의한 산책, 환자들이 하는 목적이 있는 산책, 살롱에서 이루어지는 친교를 위한 산책, 회랑과 공원의 대화처럼 사색하기 위한 산책, 낭만주의자들의 자연과의 교감을 위한 산책.... 구구절절 그르니에가 설명하는 산책의 종류를 다시 읽고 있자니, 밴드 가을방학의 ‘속아도 꿈결’이란 노래가 귀에 울리는 기분이다.

“
산책이라고 함은,
정해진 목적 없이,
업매인 데 없이 발길 가는 대로 갈 것
”

- 속아도 꿈결, 가을방학, 2010 -

그렇게 이 책의 주제는 ‘산책’이 되었다. 하나의 행정지역 경계 안에서 자신의 시공간을 고유한 방식으로 걷는 이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읽기 좋게 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최선을 다했다. 이 책에 담긴 그 ‘별 같은 이야기’ 속을 함께 천천히 거닐 때, 이 다음을 위한 새로운 단초를 찾을 수 있기를.

이정아

서대문의
사람들
PEOPLE

함께

일상

함께

공동쓰줍

연희아트페어

호랑이의 정원

비건책방

공동쓰줍

“서대문구 연희동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가게가 유독 많아요. 덕분에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플로깅 활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공동쓰줍은 이웃 간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반려견의 산책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중대형견 기피, 종차별 문제 등)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등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공동쓰줍 모임장 최우희



공동쓰줍, 낮은 시선으로 걷기

집 근처에 공동근린공원이 있어요. 강아지랑 산책하러 나서거나 외출할 때 꼭 마주치게 되는 공원이죠.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이 늘 아쉬웠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정말 많이 버리거든요. 혼자 다닐 때는 탄식만 하고 말았는데, 강아지와 함께 걷게 되면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시선이 낮고, 길에 버려진 쓰레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냄새를 맡기도 하고 밟아도 보고 입에 넣을 때도 많거든요. 강아지와 산책하며 사진도 자주 찍는데, 쓰레기 때문에 사진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주변에 강아지랑 걷는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모임을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 '공동쓰줍'의 시작이에요.

내 주변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활동으로 인해 실제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지는 않아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파급력이 셀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할수록 점점 더 화가 난다는 게 '공동쓰줍'이라는 활동을 하며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이 쓰레기들을 버리지도 않은 내가 치워야 하잖아!' 하는 분노가 생긴 거죠. 동네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자문해 봤어요. 내 주변 환경이, 산책로가 좀더 쾌적해졌으면 하는 바람.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더라고요. 가능하다면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공동쓰줍'을 진행하고 싶어요. 정해진 날에 신청자들이 조를 짜서 서대문구의 넓은 구역, 다양한 지역을 점유하며 활동의 덩치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서대문과 공동쓰줍

프로젝트를 하면 항상 다른 길, 모르는 길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한 번 기본 길이라 자신 있게 팀원 분들을 데리고 갔는데, 엉뚱한 곳에 다다르기도 했죠. 언젠가는 104고지가 나왔다가, 한 번은 가좌가 나왔다가 하는 식이에요. 덕분에 공동산 지리를 익혔어요. 또 재밌는 점은, 쓰레기를 줍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어떤 버스 정류장에는 항상 같은 브랜드의 담배꽂초가 버려져 있거나,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가지런히 모아서 버려 놓는 곳이 정해져있는, 쓰레기 버리기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더욱 화가 나죠. 같은 사람이 계속 버린다는 거니까요. 산 깊이 들어가면 쓰레기가 없어요. 항상 초입, 사람이 있는 곳에만 쓰레기가 모여 있어요. 서대문구는 산 때문인지 혹은 높은 지대나 골목이 많기 때문인지 관리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인적이 드문 곳 또한 많아서 구청 차원에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관리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공간들이 있으니 우려가 커요. 우리끼리 의미있게 여기는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싶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구청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어요. 이런 활동이 더 확산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거든요. 산의 경사가 70도나 되는 곳도 음식물쓰레기나, 전기장판 같은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저희끼리 줍고 치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공적인 차원의 도움이 꼭 필요하거나 싶은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 관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아쉽죠.

자랑하고 싶은 내 친구, 서대문

서대문이 사람이라면, 친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친구요. '자랑하고 싶은'의 속 뜻에는 자랑하려면 이 친구가 앞으로 더 잘나져야 한다는 기대도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동네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녀요. 자랑하고 싶은 친구 같은 서대문 씨와 안산의 메타세콰이어 숲을 산책하고 싶어요.

연희아트페어

“예술가는 팔 수 있고 주민들은 살 수 있는, 마을에 들어오면 작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그게 가능해진다면 자연히 작품운송 전문업체도 들어오고, 설치업체도 들어오게 될테고 미술 산업을 위한 제반 환경이 서서히 조성되겠죠.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예술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연희아트페어 황희승 큐레이터, 임대식 대표



"Call For Collector"
 2021 연희아트페어
 10. 22 ~ 10. 31

봄볏던 2021 연희아트페어, 내년에도 바쁨

이번 연희아트페어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132명의 작가들이 참여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행사에 방문했죠. 작가들의 가족, 지인까지 더하면 2-3000명이 족히 됐을 겁니다. 공간을 9개로 나눠서 행사를 했으니 중복이 있었겠지만요. 방문객이 거의 없던 플레이스막3를 보더라도 매일 몇 십명씩 방문객이 있었으니 굉장히 성공적이죠. 판매액도 높고요. 민감한 부분이고, 자칫 무례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서 같이 갤러리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순 없지만 7-8000만원정도 판매되지 않았을까 예상해요. 내년에는 날씨가 좋은 5월에 했으면 해요. 다른 행사들과 겹치지 않는 시기에 12월 중으로 갤러리 대표들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년 4월에는 작가 확정을 하자는 계획이에요.

연희동, 연희아트페어

연희동에 오랫동안 살면서 동네에 늘 특별한 애정을 가져 왔죠. 그런데 그간 다른 아트페어를 신경쓰느라 여력이 없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동네에 정성을 들여 보려고요. 그래서 디자인피 딱 20만원 받고 2022년 포스터는 직접 디자인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트페어는 홍보비 200만원만 있으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정도면 충분하죠. 소액 지원받고 행사에 간섭받고 정산에 에너지를 쏟을 바에야 그냥 우리끼리 하는 편이 나으니깐요. 올해 판매가 잘 돼 몇몇 대표 공간들-취미공간, 소노아트, 민트갤러리 등-은 비용을 각출해 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서대문엔에서 함께해 준다면 홍보효과도 더 클 뿐더러 보다 다채롭고 활기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대문과 아티테인

이제와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2017년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연희 도깨비 예술마을'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부터 이 같은 구상은 계속 해왔죠. 예술가는 팔 수 있고 주민들은 살 수 있는, 작가가 들어오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을에 대한 생각들. 이 환경이 구체적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운송 전문업체도 들어오고, 설치업체도 들어오며 가까운 곳에서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되는 구조의 진정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요. 5년이 지난 지금 그 결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올해부터는 예전과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7년도에 있던 공간 중 없어진 것도 많지만 이제 함께하는 9개의 대부분 갤러리들이 건물을 구매해 홍연길에 자리잡았어요. 또 5년쯤 후에는 홍연길을 중심으로 마포에서 서대문구까지 홍제천 쪽 따라서 축제를 열어보면 어떨까 해요. 누군가는 루미나리에를 하자고 하는데, 음악도 공연도 함께 하는 지역 축제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장 잘 하고 잘 아는 장르인 미술에 한해 행사를 해 왔으니, 앞으로 구축될 이상적인 예술 생태계 안에서 타 장르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대한 축제를 상상합니다.

서대문이 사람이라면

서대문이 사람이라면, 서대문과 함께 지금 갤러리들이 들어서 있는 갤러리거리(홍연길)를 걷고 싶어요. 9개의 전시 공간이 있는 거리를 걸으면서 컨템포러리 미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서대문 시각예술을 발전시킬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시각예술가들의 창작과 생활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호랑이의 정원

“어느 지역을 가도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자라고 있고, 등나무 벤치가 하나쯤은 있으며 몇 백 년 자란 은행나무도 있잖아요. 서대문구 지도를 살펴보면 걷기 좋은 안산이 중심에 있고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궁동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지역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가볍게 밤낮으로 운동하기 좋은 홍제천, 불광천도 있구요. 동네 산책이라는 신체활동과 함께 주변 식물의 이름과 형태를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내가 사는 환경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뚜벅뚜벅 호랑이의 식물산책 모임장 김정란, 김유정



호랑이가 보내는 쪽지

‘호랑이의 정원’은 식물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팀이에요. 처음 보는 분들은 늘 이름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너무 단순한 이유이지만, 호랑이와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여전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중이보니 스스로를 한 단어 혹은 단정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늘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의 정원을 통해 만나게 되는 참여자 분들께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묻지 않아요. 그저 어디에서 오셨는지만 묻죠.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꼭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은 모임이 되기를 바랐어요.

‘호랑이의 쪽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식물을 찍고 식물정보와 공간의 역사를 짚어주는 뉴스레터입니다. 저희는 식물을 잘 알고 싶은 사람들이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호랑이의 정원을 통해 더 많이 알아가는 중입니다. 올해는 ‘나무’를 주제로 ‘호랑이의 쪽지’를 발행했어요. 뉴스레터 테마에 집중해 나무를 찾다 보니 유명한 공간, 이름있는 나무들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자연히 서대문원을 통해 진행하는 ‘식물산책’에서는 참여자들과 함께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는 들꽃, 들풀을 눈여겨보고자 했어요. ‘닭의 장풀’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거예요. 길을 지나다 보면 정말 많이 보이는 풀인데, 모두가 본 적은 있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름을 모르죠. ‘닭의 장풀’ 꽃은 피었다가 하루만에 저요. 수정에 실패하면 스스로 꽃을 거둬들이고요. 참여자 분들과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죠. 팽이밥과 클로버의 차이 같은 것들이요. 이름을 알기 전에는 그저 ‘잡초’잖아요. 함께 산책하면서 사소한 재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식물산책이 끝나면 수첩에 롤링페이퍼처럼 기록을 남겨요. 색연필을 들고 다니면서 낙엽을 놓고 탁본을 하거나 감상을 쓰고, 추억의 다이어리 꾸미기하듯 수첩을 채우죠. 여름과 가을에 안산과 홍제천, 인왕산, 궁동산, 북한산 등을 다녔어요.

서대문과 호랑이의 정원

천연동에 작업실을 마련한 첫 해에 ‘식물산책’ 프로젝트로 서대문원에 참여하게 됐어요. 저희도 서대문을 잘 몰랐을 때라 유명한 곳 위주로 산책을 다녔죠. 이름있는 산과 하천 위주로요. 내년에 또 한번 ‘식물산책’을 진행하게 된다면 또 다른 곳, 숨겨진 곳,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을 발견하고 산책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재미있게 일하고, 가장 재미있는 방식을 찾아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서대문구는 지역 한가운데에 산이 있어 좋아요. ‘식물산책’ 신청자분들과 서대문 안산을 산책했거든요. 저희 둘이서만 산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청자를 받아 모르는 분들과 진행한 이유는, 둘만 하면 발전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희끼리 산책하며 프로젝트를 꾸렸다면 귀찮은 일도 없고 행복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둘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식물산책’을 진행하면서 사람들과 경험을 나눌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생겼고, 서로 기운을 주고받아요. 신기하게도 비슷한 취향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 묘한 공통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낯선 사람과 만나면 어색할 법도 하지만, 식물을 매개로 이야기를 시작하니 공감이가 가능한 거예요. 천천히 이 지역의 분위기를 알아가고 있지만, 아쉬움 또한 있어요. 안산은 자치구 내에도 데크 설치 및 보행길 개선으로 걷기 편한 산책길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만한 산이라 그런지 진입로가 굉장히 많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무장애길로 갈 수 있는지 찾기 어려워요. 데크가 걷기 편하긴 하지만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이나 촉감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쉽기도 하구요. 안산에는 걸으며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산책을 통해 만난 식물 관찰도 좋고 안산을 깎아 만든 지형과 역사를 찾아가는 것, 은근하게 숨어있는 바위를 만져보고 기록하는 코스도 생각해봤어요. 안산에서 볼 수 있는 식물과 바위, 안산과 관련된 도시 역사 등을 찾고 기록하며, 소소한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산책 코스를 찾고 싶어요.

꿈꾸는 학생, 서대문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많은 지역이라, 서대문하면 학생이 떠올라요. 꿈을 간직한 채로 학생의 마음처럼 행복하게 남고 싶은 곳이라서 그런가봐요. 또한 서대문은 다양한 뉘앙스가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져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을 특정하기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천연동은 바로 옆이 종로이다 보니 이 동만의 색깔이랑기 보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구의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서대문구의 지도를 보면 안산이 정말 커요. 면적 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지척에 오르기가 좋은 산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생각이예요. 꿈을 꾸는 학생 같은 서대문씨와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안산을 산책하면 좋겠어요

비건책방

“비건책방은 비건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인문과학, 에세이, 문학을 탐구해요. 우리는 ‘비건적인 삶의 태도’에 접근하고 싶었어요.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식사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삶의 다양한 경로에서 공존이라는 가치를 발견하죠.”

비건책방 모임장 제노, 문문



“비건책마켓 방문자들”

‘비건’하는 사람들

비건책방은 현재는 주 활동 멤버가 4명이에요. 오래 전부터 취향과 뜻이 맞아 퍼포먼스, 연극, 영화 작업을 함께 하던 멤버들이죠. 각각 작가, 영화감독, 연극배우, 요리사입니다. 팀명 자체가 프로젝트명이기도 해요. ‘서대문엔’을 통해서 비건에 관한 도서를 발굴, 소개하고 비건 책 모임을 진행했어요. 책을 읽고 나면 책에 관련된 정보들을 소개하고 낭독을 하거나 감상을 함께 나눴죠. 이후엔 점점 산책을 하면서 책을 읽거나 비건 레시피를 공유하고 함께 비건요리를 했어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순환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비거니즘을 도모하다

‘비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먼저 특정한 레시피나 식단을 떠올릴 거예요. 저희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비건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인문과학, 에세이, 문학을 탐구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비건적인 삶의 태도에 접근하고 싶었어요.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식사에 국한하지 않고 삶의 다양한 경로에서 공존이라는 가치를 발견하죠. 저희 역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부터 비건 관련 프로젝트를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이 결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다 점점 “내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어.”라고 선언했을 때,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불편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가 그리 말하니 느끼는 바가 있어요.”라는 대답을 해오는 사람들이 모여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이 팀의 멤버가 모두 완벽한 비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비건을 원하는 단계, 비건으로 가고 있는 단계로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을 함께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주변에서 ‘멋지다, 좋다, 나도 하고 싶다’라고 응원해주는 말을 들으면서요. 어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2022 비건책방

2021년은 서대문에서 비건책방 프로젝트를 외부와 공유하는 것을 시작한 해이기도 해요. 바쁘게 잘 진행했지만, 다른 프로젝트 팀들에게 다가갈 여력은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워요. 지나보니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비건의 실천은 내가 밟 디딘 곳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로컬’이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요. 걸어서 만날 수 있는, 또는 마을버스를 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홍제천 하면 그게 어디의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부분이 중요해요. “홍제천에서 만나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올해의 아쉬움을 토대로 내년의 활동에는 다른 팀들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설계해보고 싶어요.

서대문씨와 산책

제노 서대문은 사람보다는 길고양이 같아요. 저는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와 비건책방을 진행한 시기, 동물권에 대해 생각하게 된 시기가 모두 ‘서대문엔’에서 함께 활동한 시기가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공존을 알려준 존재 같아요. 공존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도와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인데, 서로 돕는 관계이지 호혜나 수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의미가 제게는 ‘서대문엔’과 맞물렸어요. 길고양이 같은 서대문씨와 서대문의 구석구석을 함께 탐험해 보고 싶어요. 고양이들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구석구석과 그 면면을 다 알고 다니니까요.

문문 서대문이 사람이라면, 제겐 산책 친구처럼 느껴져요. 적당한 거리에서 편안하게,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이에요. 목표하는 장소도 없이 그저 슬렁슬렁. 나의 특정한 과업을 함께 해주는 동료보다는 밤 산책 친구에 가깝죠. 낮이나 아침 산책은 비교적 가열차잖아요. 서대문씨는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 지쳐서 서로 굳이 말 걸지 않지만 편안한 밤 산책 친구 같아요. 산책 친구 서대문씨와 홍제천에 함께 가고 싶어요. 산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산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산이 계절감을 온 몸으로 뽐어내는 것 같아요. 타지역의 천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주변에 자라 있는 버드나무들도 정말 곱죠.

일상

두들페잇퍼
맘스아지트
모닥킨 상점
Roller

두들페이퍼

“도시 생활자들은 도시에 산다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외롭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책방이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이면서 비교적 안전하고 유익한 연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하지만, 단순히 각자 책이나 음료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연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상낙서’라는 부담 없는 예술 행위를 통해 보다 솔직하게 생각과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동네 책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안부를 궁금해 하는 로컬 커뮤니티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들페이퍼 모임장 김민정

doodle
paper!

일상낙서 프로젝트

‘두들페이퍼 일상낙서 프로젝트’는 2021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 4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께 낙서노트 두 권을 드리면 한 달 반 동안 각자 자유롭게 페이지를 채우는 거죠. 전시를 하고싶은 분은 다 채운 낙서노트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요. 페이퍼의 책장 한 칸에 상설로 전시되고 있는 낙서노트 코너는 그렇게 탄생했어요.

그림책방 페이퍼에서 찾는 재미, 칭찬모임

그저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페이퍼는 글보다 그림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책을 모아 놓은 곳인데,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이 끄적이고 그리는 걸 좋아해요. ‘난 다시 태어나야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낙서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한 낙서라는 이름을 붙이면, 부담이 없을거라 생각했어요. 아주 공들인 작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누군가의 낙서를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기 생각을 정제하거나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다 보니 더 가뿐하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어요. 기수별로 채팅방을 만들어 노트만 보내고 ‘알아서 채워서 며칠까지 보내주세요’ 하면 보통사람의 의지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청할 때의 마음가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마련일테니, 일주일 중에 정해진 한 시간동안 정기적으로 채팅을 진행해요. 한 주의 낙서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낙서의 사진을 공유하고 서로 오직 칭찬만 하죠. 폭풍 칭찬을 주고받아요. ‘일상낙서프로젝트’를 통해 멤버 각각의 날것의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 서로 친해졌어요. 얼굴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한달 반 동안 채팅하고 낙서를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멤버 중 누군가는 반려묘를 그리기도 하고, 인턴 생활을 시작한 분은 인턴일기를 그리기도 해요. 낙서는 자신의 일상이자 생각이다 보니 각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페이퍼에 비치된 책을 좀 즐기고 일상낙서 전시를 위한 벽면을 따로 마련했어요. 4기 모임까지 모두 끝난 12월에는 지난 기수의 ‘두들페이퍼’ 멤버들이 자기 창작물, 책이나 물건을 모아와서 함께 베품시장을 겸한 송년회를 개최할 생각이예요. 서대문엔에는 두들페이퍼 3기와 함께했어요.

일상 공유, ‘모임’의 확장

참여자는 대부분 서대문구,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해보니, 산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서대문구 일대의 산책하기 좋은 곳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모임이 진행될수록 서로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니까 작업실을 가진 예술가, 작업자분들이 페이퍼 근처에 많이 사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참여자분들만의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참여했다가 지금까지 쪽 모임에 참가하는 분들이 계속요. 그 분들을 구심점으로 무언가 새로운 모임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모임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모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신기해요.

‘책 만들기’의 로망

올해, 여건이 마땅치 않아 추진하지 못한 계획이 있어요. 일상낙서 노트들을 모아서 책을 내는 것이요. 낙서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의 노트는 ‘이거 스캔만 해도 책이 되겠는데?’ 싶어요. 손에 잡히는 종이책의 느낌이 참 좋아서 스캔만 해도 되는 퀄리티라면 전자책을 만들까 라고도 생각했어요. 전자책을 만들게 되면 네이버 책 정보에 저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저는 글도 못쓰고, 그림도 못 그려요’ 하시는 참가자 분들이 자신의 책을 갖게 되고 저자가 되어보는 그 경험이 너무나 뿌듯할 것 같거든요.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책의 저자가 되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낙서라고 시작했는데 비싼 돈을 주고 책을 파는 건 좀 그렇잖아요? 책값을 저렴하게 책정해서 팔기에는 전자책이 또 좋으니깐요.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책을 만드는 것이 내년의 희망사항이예요.

닮고 싶은 별난 이모, 서대문

서대문이 사람이라면, 이모 같아요. 겉으로는 참해 보이는데,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별난 이모요. 시대를 앞서가면서 뭔가 자유롭게 사는, ‘나는 독신주의자야’ 하는 사람 같아요. 저한테 연희동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겉으로는 번듯하고 참하니 여유로운데 속을 알고 보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내면을 갖고 있는 타입,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번듯하고 안정적이지만 내면에는 재밌게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다양한 작당을 하는, 그래서 닮고 싶은 이모 같아요. 그 이모랑 ‘페이퍼’에 놀러가야죠. 이모는 종이책도 좋아하고, 만화책도 많이 봤을 것만 같아요. 걸모습은 우아하게 비싸고 맛있는 레스토랑 좋아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페이퍼에서 옛날 만화책을 보며, 라면 끓여 먹고 놀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맘스아지트

“인왕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이곳은 원래 함바집*이었어요. 아이들이 하교하고 바로 이곳으로 오면 함께 식사도 하고 놀 수 있도록 하고 싶었죠. 엄마들도 함께 모여 일하고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놀기도 하는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했어요. 다같이 영화도 함께 볼 계획이라, 팝콘 기계도 들여 놓았어요.

맘스아지트 10 o'clock 모임장 박미화

*
건설 현장 안에 지어 놓은
간이 식당을 부르는 말



위로와 안식이 이곳에, 우리의 아지트

‘맘스아지트’는 인왕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공간유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있지만 여기서 엄마들이 함께 일하고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덜컥 계약을 하고 공간을 확장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아서 우선 엄마들과 만나자고 정했습니다. 대면으로 만날 수는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서대문엔 프로젝트를 위해 5회 정도 모였어요. 엄마들의 지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생각 하다가 노래라는 매개체를 찾게 되었죠. 모였던 어머니들 중 한 분이 라이브 바를 하셨거든요. 그 공간에서 노래 배우기 교실을 진행했어요. 또 다른 어머니 한 분은 라탄공예를 하셔서 함께 배워봤고, 다음으로는 꽃 배우기 교실도 준비하고 있어요. 서로 재능기부를 하는 거죠.

엄마 말고 내가 되는 시간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오전 10시가 엄마들에게 가장 여유있는 시간이예요. 그 시간이 되면 지금은 누군가의 엄마인 사람들이, 그 이전처럼 온전히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되죠. 육아하며 만난 이 엄마들의 모임은 7명 정도가 함께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모임이 더 자유로워지면 아마 인원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노래하는 분, 화훼 전문가, 공예를 잘 하시는 분이나 원단을 잘 다루는 분도 있고 심리 상담가도 있어요. 엄마가 되기 전엔 다들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펼치고 공력을 키워던 분들이었죠. 출산 후로는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을 서로 공감해요 .

함께 만든 ‘홍제놀장’이 벌써 3년이나 됐어요. 마을 벼룩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엄마들이 합심해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되기 전에는 나의 일, 몰두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기고부터는 우리끼리 즐거워서 하는 일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니 우리 자신이 즐겁고, 아이들끼리 같이 노는 것도 즐거웠어요. 또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시간도 더 생겼고요. 이에 더해, 활동비를 지급받는 지원사업에 의지해 활동하다 보면 자립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함께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활동도 모색해 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죠. 처음에는 쉽게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활동을 이어가다보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상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뭉클함을 느낀 거예요. 1년간 벼룩시장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한 방에 사르르 녹았어요. 엄마로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성취감을 얻었거든요.

서대문과 맘스아지트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이 근처에 아이들을 위한 ‘돌봄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맘스아지트’를 이곳에 마련한 이유도 있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잠깐 활동할 때 알아보니 이 지역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 자체도 별로 없고 생각보다 비용도 비싸게 드는 데다 마땅한 부지도 없더라고요. 내가 아예 건물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 근처에는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전무하다시피 해요. 관에서 지원한다면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역 자체의 핸디캡이 강력한 것 같아요. 건물들이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건물을 새로 만들 적당한 부지가 없어요. 월세도 점점 더 오르고 있고요. 한 번은 돌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돌봄이 필요한 건 아이들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들도 돌봄이 필요 하더라고요. 아이가 없는 사람도, 스스로를 돌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돌봄에 대한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찾게 된다면, 2022년 서대문엔을 통해 추진해보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밥 먹었나 한마디 묻기만 해도 든든한 위안이 되는 것처럼요. 이제 새로 마련한 공간엔 함께 밥을 지어먹을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그런 시도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서대문씨와 산책

맘스아지트를 열기 전에는 서대문이라는 공간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활동을 하면서 서대문에서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구청에서도 이것저것 일을 맡다 보니 서대문은 제게 마치 제 2의 고향, 또는 친정,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정 엄마 같은 서대문씨와 산책을 한다면 안산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홍제천을 산책하면서 자주 가봤어요. 안산에 ‘허브원’이라고, 홍제천 쪽으로 올라가 연희심터로 가면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는 ‘벚꽃책방’도 있고 해먹도 있고 그늘도 있지요. ‘허브원’에서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면 폭포도 보이고요. 혼자였다면 아마 귀찮아서 안 돌아다녔을 거예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러 다니다 보니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죠. 아이들과 산책했던 순간들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어 학부모 모임에서 공유하기도 했고요.

Roller

“Roller’는 앞으로 좀 더 심화된 버전의 프로젝트를 해 볼 예정이에요. 필름은 사진업계에서 사양길로 접어든 매체잖아요. ‘없어지는 것들을 없어지는 필름으로 담아보자’, 이런 기획을 해 왔는데, 오직 그 곳에만 있는, 그리고 사라지고 있는 것들의 순간을 기록하는 작업이 여전히 화두예요.”

Roller 모임장 함수현



기록하는 사람들

‘Roller’는 ‘페이트퍼’에서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함께 공통의 취미인 필름사진으로 이 활동을 기록해보자 하며 시작했어요. 개인의 작업과 프로젝트 작업의 간극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일상속에서 좋아하는 걸 담은 활동으로 충분했는데, 서대문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활동하다 보니 예술창작 계열에 있지 않은 분들은 부담이 있고, 주제를 맞춰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전시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우리의 표현영역을 넓히자’로 틀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비해 필름은 변수가 많고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이 커요. 사진을 날리거나 카메라가 고장 나거나 하면 결과물이 소멸되기도 하고요. 필름으로 뭔가를 기록하는 건 재미와 감성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하는 작업에서는 핸디캡이 있어서 이후에는 주제를 잡고 디지털카메라로 작업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롯한 하나를 담는 것

한 사람은 기획자 겸 프로그래머이고, 또 한 사람은 ‘페이트퍼’ 직원이면서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제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특별히 잘 하는 건 없지만 디자인을 업으로 삼으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서로 부딪히는 것 없이 여기가자 하면 따라 가고 저거 하자 하면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이어서, 서대문엔 사업참여를 계기로 친목모임에서 프로젝트 팀이 되었어요. 서대문엔 사업이 정확한 결과물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만의 기준을설정하다 보니 그 기준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필름 한 롤에 이야기 하나를 담자’, ‘한가지 주제를 한 롤에 담아서 전시를 하자’가 저희의 슬로건이었어요. 초반에는 서대문 우체통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어떤 우체통은 못이 박혀 있기도 하고 기능을 못하는 우체통도 많더라고요. 필름 한 롤 안에 우체통만 36컷을 담는다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작가들은 작정을 하고 찍으니 가능한데, 저희처럼 취미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죠. 전시까지는 저희만의 경험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열심히 시행착오 중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을 없어지는 필름으로

그간 ‘Roller’는 개별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심화된 버전의 ‘Roller’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주제나 형태를 잡고 시작해서 전시나 출간까지 다다르는 것이 목표예요. 필름은 사진업계에서 사양길로 접어든 매체잖아요. ‘없어지는 것들을 없어지는 필름으로 담아보자’가 여전히 화두예요. 연희동에는 큰 집, 큰 주택이 많은데 담벼락 모양이 다 달라요. 자기만의 개성을 담아서 만드신 거겠죠. 그렇게 독특한 느낌을 주는 공간들이 언제까지 그대로 있을 지 알 수 없잖아요. 오직 그 곳에만 있으며 사라지고 있는 것들의 순간을 한 장면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너무 올드한 것, 옛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자칫 보는 사람들에게 지루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은 분명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대문씨와 함께

서대문에는 휴식을 하거나 먹고 놀 수 있는 공간 등, 많은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능으로 특화된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천도 있고 안산이 있고, 상업지구도 있고, 주거지역도 크고, 문화시설도 소소하지만 꽤 있고, 골목이 많아서 산책하기도 좋고요. 서대문이 사람이라면 오래된, 동네 단골 슈퍼마켓 사장님같아요.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걸 찾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찾는 게 없으면 다른 걸 추천해주시기도 해요. 대형마트처럼 모든 게 있지 않아요. 완벽하게 모든 게 구비된 것은 아닌데, 물건 사는 것만이 아니라 괜한 쓸데없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슈퍼마켓 사장님이죠. 난 오리온 오징어 땅콩이 먹고 싶은데 없을 때, ‘해태’는 있다고 추천해주는.





목공도구 사용법을 배우며 한땀한땀 깎아보는 경험
가구드로잉
@furniture_drawing



서대문을 걸으며 수소문한 흥미로운 기록들
수소문
@suso_mun



잃어버린 우리의 밤을 찾아서
원산지서대문
@sdm.madein



청년문화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서대문엔
신춘문화정치연구그룹
@sccr_0405



당신은 개에게 무엇을 받았나요?
산책길에서 얻은 답변들을 그립니다.
개념프로젝트 with 고이본
@whatdogsgiveyou



함께 공동산을 걸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산책길 만들기
공동쓰줍
@plogging_yeonhui



찰랑찰랑, 놀러담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속 시원한 대화, 담금주 풀이
씨더션 물밑대화
@moolmittalk



필름 한 롤으로 기록하는 서대문의 이야기
ROLLER
@studio_ro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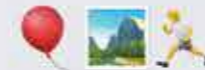
뚜벅뚜벅 함께 걸으며 식물 관찰하기
호랑이의정원
@tygertyger2020



배리어프리 자막 콘텐츠를 위한 연구
다큰아씨들
@herfilmproduction



홍연길 소규모 갤러리들이 함께 만드는 연희아트페어2021
아터테인 @artertain_



홍제천에서 풍선찾기! 말풍선프로젝트
23_3
@hong23_3



서대문만의 특별한 예술교육, 숲속의반려친구들
다음을위한달음
@seodaemun_art_edu



엄마가 자유로워지는 시간, 10시
맘사지트 10 O'Clock
@momsagit_tenoclock



작가, 배우가 함께 하는
연대와 하소연, 생존신고
작배몽
@zakbaemong_



"당신의 소우주를 환영합니다."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독
@cafe.spacedog



비건책 전문서점 준비 프로젝트
"내년 봄, 홍제천변 골목에
비건책방이 생깁니다."
비건책방
@veganbooks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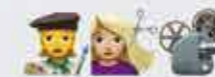
모닥불을 피워두고 함께
필사의 모험을 떠날
도전자를 기다리는
모닥킨상점
@modakin_



나만 알고 싶은 비밀책방
페이퍼
@paperr.bookshop



누군가의 B품이 선물이 되어
다른 누군가의 품으로.
파티션WSC
@partition_wsc



작업과 작업 외의 일,
그 사이까지 나눌 수 있는
작가 6인의 다큐멘터리
플랫폼팜파
@platform_pampa



호랑이의 뚜벅뚜벅 식물산책



정원은 꽃이나 식물을 키우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다양한 취향을 가꾸거나 신비로운 무언가가 가득한 곳을 상상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비밀의 정원처럼 다양한 생각과 식물이 자라는 정원 속 어딘가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여운 호랑이가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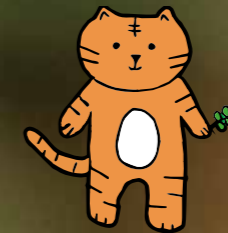
호랑이의 정원은 식물을 좋아하는 두 친구가 만나 활동하는 단체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식물경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물, 환경, 마을, 도시, 역사, 아카이브 등 다양한 연결 지점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안해요.



지난 겨울 서대문에 자리잡은 호랑이의 정원은 주변을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산책을 다녔습니다. 지나다니며 골목을 꾸며놓은 화분부터 주택 담장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적인 공간을 보기도 하고, 목련꽃이 화려하게 핀 나무를 한참 올려다보기도 했답니다.

아, 이 같은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도 참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공장소의 나무를 위주로 나무와 공간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가 담긴 뉴스레터를 만들고, 참여자를 모집해 함께 서대문의 산과 하천을 걸으며 식물을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식물산책도 진행하게 되었죠.



호랑이의 뚜벅뚜벅 식물산책은 호랑이의 정원 멤버 2명, 신청자 2명이 함께하는 산책입니다. 처음 만나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고 인사를 나눈 뒤 식물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걷어가는 것이 저희 산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누구나 환영해!) 산책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여름 5회, 가을 5회가 진행되었어요. 참여자들은 산책이 끝나고 롤링페이퍼 형식으로 수첩에 간단한 감상을 적고 떠납니다. 저희도 답사 때 만났던 식물의 이름을 찾아보거나 특징들을 공부하면서 함께 수첩을 채워갔답니다. 함께 산책에 참여한 참여자에게는 호랑이가 좋아하는 찹쌀떡 간식과 손수건도 제공했는데요. 손수건 속 호랑이가 들고 있는 나뭇잎은 안산에 많은 아까시나무의 잎이랍니다. 아! 모두들 알고 계셨나요? 아까시나뭇잎을 가지고 보는 나뭇잎 점. 잎을 한 장 씩 뜯어내며 이를테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읊으며 보는 식물점사죠. 마지막 잎과 함께 말한 것이 누군가의 진심, 무언가의 진실로 결론지어지죠.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도 결정지어 주고요. 그런데 아까시나뭇잎이 홀수로 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답니다. 결국 무엇이든 첫 잎을 뜯으며 시작한 말이 늘 이뤄지는 나뭇잎이었던 것이죠!

산책의 주제는 "잡초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부러 심지 않아도 바람을 타고, 강물에 떠 내려와, 개미가 옮겨서, 사람 신발에 붙어서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 잡초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생애나 특성을 찾아보고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을 알게 된 잡초는 이제 더 이상 잡초라 부르지 않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제비꽃이 많았구나! 개미가 옮긴 흔적이구나 봐요. 여기에는 주름조개풀이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온갖 들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곳곳에서 자기만의 생애를 곳곳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 이 바쁘고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만 너무 느긋하게 이룬 것 없이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낮의 산책 중에는 식물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답니다. 곳곳에 놓인 운동시설을 부지런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사람들이 떠난 재개발 지역 골목에서 한가로이 햇볕을 쬐는 고양이, 여름 식물들 사이 탈피한 매미 껍질,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주변도, 우리도 조용해지는 한가한 순간들. 천천히 걸으며 보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산책의 묘미가 아닐까요? 겨울에도 식물산책을 할 수 있답니다. 건던 발끝엔 매서운 추위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씨앗을 잔뜩 품고 봄을 기다리는 마른 풀이 있고 시선을 하늘가로 올려보면 대롱대롱 저마다의 열매를 매달고 있는 나뭇가지를 볼 수 있어요. 쓸쓸해지는 연말, 한껏 움츠러들지만 햇볕 따뜻한 날에는 목도리를 두르고 걷다보면 식물들처럼 곳곳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서대문엔 × 서동발랄

서대문엔 + 생활문화 + 생활문화활동가

생활문화활동가란 예술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마음껏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서대문구내에서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생활문화활동을 위한 장소를 모색하거나,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겨난 역할로,
서울시 각 자치구에 재단에서 뽑은 활동가들이 파견됐다.

현재 자치구마다 2인의 생활문화활동가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작년부터는 서울문화재단이 아닌 구청에 소속돼 활동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생활문화활동가 3년차인 두 사람 글쓰기 노동자 박초롱씨와
조형예술작가, 공공예술 프로젝트 기획자이기도 한 김태균씨.
2021년 두 사람은 생활문화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테크닉과
활동기반 강화프로그램인 콩닥콩닥배움터, 서대문구의 좋은
사람과 좋은 공간 영상 핫플굿플을 기획했다. 생기 넘치는
타이틀로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꾸준한 활기를 불어넣으며
차근차근,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낸 셈.
더불어 생활문화인들이 주도하는 워크샵 서동발랄과 월간사랑방,
생활문화인 연합발표회 서동발랄과 하몽추몽을 운영하며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졌다.



초롱

생활문화활동가는 1차 서류,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돼요.
면접에서는 생활문화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의 생활문화가 주로
나이든 분들을 대상으로 기획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2차 대면
심사에서 젊은 세대와 시니어세대를 연결하는 생활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대답을 한 기억이 나네요. 생활문화활동가로서
실제 활동을 하다 보니 젊은 세대는 자생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해내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생활문화를 잘 누리고 있는
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보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기존 방식대로 나이대가 있는 구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여기게 되었죠.

태균

예술이라는 건 특정 세대나 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생활문화활동가'의 역할은 사람들이 예술을 처음
접하거나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에서 예술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매개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술과 일반시민을 매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인 것이죠.
저는 조형예술 작가이지만 공공예술을 기획하고 발굴하며
교류의 장을 만드는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공공예술에서
공공의 의미를 찾는달까요. 이런 활동의 가치가 또 하나의 예술을
꽃피울 거라고 믿었어요.

서대문구의 생활문화

초롱

생활문화라는 단어를 받아 들면,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상을 그리는 것 같아요. 생활문화라는 것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지요. 제가 그리는 생활문화는 생계와는 큰 관련이 없는 취미의 영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완성도의 높낮이로 가치판단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시민과 가깝게 존재하고 다가가기 쉽다 여겨지는 활동이 되어야 해요. 서대문구는 인구 이동이 활발한 마포구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소위 '핫한' 공간도 많지만 동시에 주택가, 산책로, 한적한 공원도 많습니다. 이 점들이 생활문화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돼요.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그렇다고 완전히 서로 이방인인 사람들만 오가는 유희의 거리도 아닌 곳이라서요.

태균

지역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의 구분이 명확한데, 생활문화 영역에서는 그 구분이 상당히 흐려지는 것 같아요. 예술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대상자는 그것을 향유하는 단계, 그저 지켜보는 위치에만 머물지 않아요. 문화예술의 향유자인 동시에 생산자, 주체로 변화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관객으로 앉아 있다가 문득, '내가 저걸 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무대에 올라보고 싶다' 하는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매력은 예술을 완성도나 질로만 판단하는 통념과는 다른 특유의 가치를 탄생시킵니다.

'생활문화활동가'사업은 서대문구청과 서울문화재단,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모두 함께 진행하는 일이에요. 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담당자가 매년 바뀌기도 했죠. 사업을 담당하는 분들 각자가 사업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일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현장에서 활동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 많이 기대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활문화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아쉬워요. 특히 우려 되는 부분은 일정 수준의 생활문화가 회복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생활문화활동의 다변화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화활동의 관람자에서 주인공이 되어 보았는데, 그 모습이 다양해지면 더 좋잖아요. 지금은 공연과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초롱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싶어요.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서대문구의 생활문화활동, 그리고 공간과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활동에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사업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곳이 많아지면 오히려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부에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매년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제를 위해 예산도 추가로 계속 지출되고요. 서대문엔 정보 공유의 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대문구의 생활문화활동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생활문화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련해 포럼이나 세미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태균

'하몽추몽' 행사 속에 '호랑이의 정원'이 있는 것처럼, 서로의 존재를 알고 서로의 인프라와 문화가 흘러들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서대문씨와 생활문화활동가들

초롱

제게 서대문은 가족은 가족인데, 성격 안 맞는 가족 같아요. 같이 지내기 참 힘든데 가족이라 끊을 수도 없고, 맨날 서로 욕하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결국 찾아가게 되는 존재랄까요. 어떤 커뮤니티와 한동안 엄청 친하게 지내다가도 대판 싸우면서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간 이식' 같은 게 필요할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고, 그럴 때 연락하면 기꺼이 받아 주는 식이죠. 이 안에서 저는 좌충우돌하면서 계속 무언가에 실패하는데 또 다시 도전을 시작해요.

태균

제게는, 서대문은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신이에요. 정년퇴임도 하고, 인생을 즐기는 분이죠. 제가 본 서대문구에는 실제로 어른신들이 많기도 해요. 그 분들의 여유와 삶의 경험, 스스로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봐오다 보니, 서대문구에서도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열정은 가득한 인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What dogs give you



벤지

벤지에게 영석님이 받은 것은?
 벤지 전에는 조그만 슈нау저를 키웠었는데 그때는 그냥 다들 애완견 키우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형견을 키우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벤지의 체형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갈 때마다 아주 내기가 막 사는 것 같아요. (웃음) 보는 사람들마다 잘 생겼다고 하고, 나갈 때마다 어깨가 짝 펴지는 것 같아요. 또 산책하는 데 홍제천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개전에서 벤지만큼 잘생긴 애가 없다고 그래서 아주 제기가 팍팍 살고, 더불어서 아주 제가 잘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자신감이 막 충전돼요.

2021. 10. 31
 상암 반려견놀이터에서
 (로건이랑 벤지가 노는 틈을 타서)



로건

로건이에게 이본님이 받은 것은?
 음악에 대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음악이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잖아요? 실은 저는 그런 가사들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 (웃음) 로건이가 오고 나서 어느날 비틀즈의 <I want to hold your hand>를 듣는데 그 가사가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듣는 내내 로건이가 생각나고 그래서 '아 이런마음에 이렇게 가사들을 쓰는거구나.' 싶고... 저도 막 로건이를 그냥 터치만 해도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2021. 09. 23
 로건이랑 홍제천을 걸으면서 자문자답

월밍해피산군밤



강아지들에게 지하님이 받은 것은?
 감수성이요. 월이가 온 지 이제 10년 됐는데 전보다 느끼는 감정이 되게 많아져 가지고, 사소한 것에 몰입하게 되고 울게 되고 이런 게 생겼어요. 항상 울 때 월이 옆에 가서 울고... 이러면 괜히 안정되고 이렇더라고요. 로건이 보면 뭔가 예뻐서 눈물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도... 그 애들이 막 나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더 그런게 있어요. 죄책감이 너무 많아요. 애들을 좋아하는 거 플러스 걱정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보면 막 슬프고... 애들이 늙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가 안 좋아져서 딱딱한 걸 못 씹고, 다른 친구들은 아직 그래도 거의 5,6년 이렇게 된 친구들인데, 월이는 10살 됐으니까 산책 속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월이만 따로 시키는데 진짜 산책이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이 걸음걸이가. 그래서 원래 리드줄이 막 팽팽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닥에 쓸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엄청 짠했어요.

2021. 10. 28
 <보들라운지>에서 알바하는 지하님이 쉬는 틈을 타서

서대문의 공간들 PLACE

공공

민간

공공

로컬 콘텐츠랩 새로그침

연희문학창작촌

마을활력소 천연동 옹달샘

& 하하호호 홍제

청년예술청 SAPY

오래된 동네 가게와 함께 지역문화를 로컬 콘텐츠 랩 새로고침

서대문구 거북골로 37-10, 3층
02-3140-8047
@gajwa_official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비욕구를 지역 상점에 담아서 주민들이 동네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는 한 공간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활동가와 로컬 크리에이터, 스타트업이 함께 하죠. 각자의 사업이 다 다르지만 서로의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장점이에요.

우리 동네를 새로고침

5년 전만 해도 이 동네에 없었던 자기만의 색을 가진 카페들이 생기고, 공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게들이 모여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선한 기획을 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미 그런 갈급함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만나왔던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계셨고요. 그 분들의 연결이 새로운 기획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조력자가 되려고 해요. 아직 오픈한지는 1년이 채 안되었어요. 지금이 제일 예쁠 때죠. 곧 첫 돌을 맞이하니까요. 돌잡이에서 돈을 잡을지 명주실을 잡을지, 연필을 잡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새로고침의 설립 목표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비욕구를 지역에서 해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공적 공간이지만 활동가와 로컬 크리에이터, 스타트업이 함께 모여 있어요. 각자의 사업이 달라도 서로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새로 고침의 장점이에요.

로컬크리에이터, 로컬 콘텐츠

새로고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요.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서대문구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모였어요. 문화기획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로, 양성과정을 들으면서 지역과 문화가 연계된 사업에 대한 기대로 참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어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컬문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집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골목상권 들여다보기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 골목을 지키고 있는 가게들의 성공과 실패, 어려움을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해요. 이 동네에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동네에 수제화 가게가 있는데, 처음에는 중국산 신발을 떼어다가 쌓아 놓고 파는 집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종일 신발만 만드는 장인의 수제화 가게였어요. 그 분이 만든 신발은 정말 탁월한데,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탓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거였죠. 사장님께 바로 옆 안경 가게에 신발 딱 두 켤레만 전시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색다르게 전시해보니 그 분이 만든 신발에 대한 행인들의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효과를 내는 기획들을 더 많이 제안하고 싶어요. 주민이 모이고 상인도 함께하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들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예요.

서대문구와 새로고침

남가좌동 일대를 살펴보면,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참고해야 할 모델은 홍대나 연희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곳은 외부 사람들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방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여기의 개념은 달라야 한다고 봐요. 이 지역에 새롭게 구성된 아파트가 서울의 마지막 최대 뉴타운, 대단지 아파트예요. 길 건너 바로 앞 남가좌2동은 여전히 구식 상권으로 남아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조차 동네가 낡은 느낌이고 갈 곳이 없다고 하세요. 우스갯소리로 "파스타를 먹으려고 연희동까지 가야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인들의 연대의식과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 생태계를 만들려 해요.

최근에는 동네 가게들에 공유 사물함을 설치했어요. 중고물품을 사고 팔 때, 비대면으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사물함 때문에 그 가게를 방문하고 단골이 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지역 사업을 진행하면 자칫 이런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중이에요. '우리 동네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하나된 마음이지요. 주민들의 문화적 소비욕구를 지역 상점에 실어서, 동네에서 소비하고 활동하는 주민들과 상생하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새로고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새로고침의 주요 프로젝트는 '0과 1사이'입니다. 서대문구 내의 창업가를 인터뷰해요.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예비 창업가나 예술가들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영감을 주고받도록 하고자 만들게 된 프로젝트예요. 지역에서 뭔가 도모하기 위해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서대문구의 사람들을 다루고 싶어요. 남가좌동 골목에서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새로고침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는 열정적인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모두를 위한 연희동 문학의 숲 연희문학창작촌

서대문구 증가로 2길 6-7
 @ webzinewiew
 webyeon@sfac.or.kr

연희문학창작촌은 계절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데 방문객이 많지 않아요. 특히 문학미디어랩은 소장 도서가 만 권이 넘는, 어지간한 공공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인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시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편하게 커피 한 잔 하며 책을 읽을 수 있고 천천히 걸으며 풍광을 느끼기 좋은 곳인데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쉽죠.

연희동의 문인들

연희문학창작촌은 서울시에서 만든 문인을 위한 최초의 입주형 레지던시예요. 2009년 11월 5일에 개관을 했죠. 현재는 19명의 작가들이 상주하며 글을 쓰고 계세요. 우스갯소리로 한국문학작가라면 누구나 연희문학창작촌의 공유 공간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다고들 해요. 그만큼 이곳을 거쳐간 작가들이 정말 많아요. 이곳에서 창작하신 작품 서문에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집필했다' 정도만 써 주셔도 감사한 일인데, 연희문학창작촌에 대한 추억을 문학잡지에 기고하신 작가님도 계세요. 원로 작가님들부터 20대 신진 작가님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작업 중이에요. 매달 한 번씩 입주작가님들의 회의가 있어요. 이름은 '연희의 식탁'입니다. 입주하시는 작가님들이 바뀔 때마다 서로 인사도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련했어요.



활짝 열려있는 숲 속 정원

공간의 주 목적이 작가 지원 이기도 하고, 외부에 홍보할 채널이 부족해요. 가끔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견학 문의가 오긴 하지만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반 시민들도 연희문학창작촌 정원을 이용하시거나 문학미디어랩에서 도서 열람을 하실 수 있어요. 정원 한 켠에 마련된 야외공연장에서 대관 신청을 통해 문화행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연희문학창작촌은 웹진 '비유'를 발간하고 오프라인 낭독공연이나 북 콘서트를 열기도 했어요. 문학미디어랩은 연희문학창작촌 3동 지하1층에 자리해요. 10명 정도는 거뜬히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문학과 연계성이 있다면, 야외 무대와 문학미디어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코로나19 인원제한이 완화되면 다채로운 문학 모임이나 책 읽기 모임들이 보다 활발하게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촌의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풍경이 정말 예뻐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름과 가을의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공간

마을활력소 천연동 웅달샘 & 하하호호 홍제

천연동 웅달샘	서대문구 독립문로10길 6 https://cafe.naver.com/ods0308 070-8119-6346
하하호호 홍제	서대문구 통일로 483 https://blog.naver.com/hahahoho0056 02-395-0056

마을활력소는 공공에서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주민위원회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운영하는 체계는 이미 만들어 졌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양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아가야겠죠.

주민참여형 자치공간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주민자치센터와 다른 점이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영화를 보거나 뜨개질 강좌를 열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마을활력소는 하드웨어를 공공에서 제공받고, 주민위원회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맡는 공간이에요.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운영하는 체계는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양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아가야겠죠. 천연동 웅달샘은 공간 설계를 두 번 했어요. 주민들이 초기 설계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다시 했거든요. '공간 설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 나간다' 는 것이 마을활력소만의 차별화 시나리오예요. 지역에 따라 공간 내부에 도서관이 있거나 공유 부엌이 있기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내가 가진 콘텐츠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먼저 제안해보세요. 운영위원회와 논의 해 볼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답니다.



사랑이 필요해

운영위원회 모임을 진행하면서 마을 활력소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드려도 아직 이해도가 낮아요. 공간이 활성화하려면 공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죠. '이 공간이 내 집이다', '이 곳은 내 것이다.'하는 마음이 곧 공간에 대한 애정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이 공간의 특성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공간을 도와준다', '나는 여기서 일을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듯해요. 공간을 사랑하고 여기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워요. 너무 필요해서, 욕구가 쌓이고 쌓이다 폭발하듯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보니 그렇지 않나 싶어요.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교류하던 시절에서 제 3의 공간에서 만남을 갖고 활동을 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마을활력소가 필요해졌다고 보거든요. 공공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수업에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지역문화체육센터 형식에서 이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 맞추어 이곳이 탄생한 셈이에요. 공간은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단단한 지속성을 갖죠. 주민들이 마을 활력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찾는 게 현재의 목표예요. 아무래도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공간이니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마치 주민들의 욕구가 쌓여 만들어진 공간처럼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와 마을활력소

지역의 문화, 예술, 체육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라도 그 공간을 활용할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든, 서대문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제안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죠. 하지만 마을활력소 공간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천연동 웅달샘은 젊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요. 공유 부엌에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요. 홍제천에 인접한 야외데크가 있는 하하호호는 어르신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주로 건강을 컨셉으로 주민들과 만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공간에 제안하는 것이 좋을지,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마을활력소의 핵심은 관계망이에요. 그 관계망이 좀 더 촘촘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 주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너무나 환영할 거예요. 서대문구 안에서 주민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면 정말 좋겠죠. 동아리 형태, 혹은 2~3명의 작은 모임이어도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지면 좋겠어요. 관계망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가 늘고 주민들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서 계속 모이는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제안되기를 바라요.

청년기의 예술, 예술의 청년기를 위하여

청년예술청SAPY

서대문구 경기대로 26-26 어바니엘충정로 102동 지하 2층
 @ sapy.kr
 youthcheong@sfac.or.kr

청년예술청은 과정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발표 이전 단계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술가들이 카페에 가서 작업하는 기분으로 이곳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경계의 문턱을 낮추는 발판, 청년예술청

공적인 예술 공간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 받고 승인 후에 또 예술인의 개인 자격증명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청년예술청은 그런 복잡한 문턱을 최소화했어요. 청년예술청 파트너십은 '문화예술인', '미래의 문화예술인', '문화향유자'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 역시 충분히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주제를 나누고 전시를 보는 등의 모든 활동들이 이 판을 넓히고 미래의 관객들을 확보하는 밑작업이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청년예술청 파트너가 되면 회의실과 연습실은 네이버 대관 시스템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대관 신청의 목적이 문화예술프로젝트 개념 안에 있거나 한다면 보통 하루 안에 승인이 나죠. 예약은 선착순이에요. 청년예술청의 기조는 '최대한 문턱을 낮추자'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얻는 것에 비교적 취약할 수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발판이 되길 바라거든요.

과정만으로도 충분해

일반적인 창작공간들은 공연이나 전시처럼 결과 발표를 위한 곳이 많아요. 청년예술청은 발표 이전 단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많은 예술가들이 사전 작업을 하려고 카페에 가잖아요. 카페에 가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규모도 크고 미디어실과 전시실, 회의실 등도 잘 갖춰져 있어요. 청년예술청의 첫 기획 사업으로 '스페이스랩'을 진행하고 있어요. 첫 사업이니 공간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죠. 청년예술청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예술활동을 펼쳐보게 하는 사업이죠. 다른 지원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는 과정으로 끝내도 된다는 점이에요. 꼭 결과물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리서치 내용을 설명해도 되고, 반드시 작품을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뭔가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 청년의 공간은 고급스러우면 안돼?

청년의 공간이나 청년예술가의 공간이라 하면 '가변적인, 저렴한, 쉽게 허물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청년예술청에 들어서면 고급 호텔 로비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공간을 디자인하신 작가님의 의도였어요. '왜 청년의 공간은 고급스러우면 안되지?'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누구나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카페를 좋아하잖아요. 청년예술가하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해보자 했어요. 청년예술가라는 말에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이미지를 깨려고 했고,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의도에 설득이 된 거죠.



청년예술가가 운영하는 청년예술청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실험적이고 열려 있는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를 청년예술인이라 본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청년예술인이예요. 공간에 제한이나 울타리를 두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그 안을 채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청년예술청을 만들기 위한 기획 단계부터 '당사자성'이 중요한 화두였어요. 이에 따라 청년예술인들이 공간의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모색했고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이 만들어졌어요. 담당자 한 분은 미술 작가이고 한 분은 사진 작가예요. 대관과 장비 대여 업무를 하신데, 이분들이 예술가이기도 하니 기본적으로 장비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쉽죠. 카페에도 '진짜 제대로 해보자.' 하는 목표로 10년간 바리스타로 일하신 분을 섭외했어요. 시인이기도 한 분이 커피를 직접 내려주세요. 공간을 운영하고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분들 역시 예술가인들이라는 점이 청년예술청의 주요한 특징이죠.

'청년예술청을 청년예술가의 작품으로 채우자'는 상상으로 작품구매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공간 일부에 청년예술인이 만든 가구 작품을 사서 두기도 했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컵이나 스탠드, 의자 등의 소품부터 벽면에 걸릴 그림까지 청년예술인이 만든 것으로 채우고 싶어요.

서대문구와 청년예술청

어떻게 보면 충정로는 예술가들에게 외면당한 지역이죠. 서점도 없고, 극장이나 작업실도 인근 을지로와 홍대에 비교하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이미 잘되고 있는 단체와 콜라보해서 운영을 시작해보려 했는데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발점이 되자'로 모토를 바꿨죠. 을지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고, 홍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많이 방문하고요. 충정로가 청년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새로운 교차점이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민간

신촌문화관

하늘꿈 작은 도서관

1M Space

noncontempo와

연희동연구소

**좋아서 하는 무모한 일들이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신촌문화관**

서대문구 연세로2마길 14
 @sinchon.munhwagwan
 02-517-1124

무모한 시도들이 하나씩 쌓여 지금의 신촌문화관을 채운 셈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놔다고 한다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이곳이 임대사업장인지 전시장인지 카페인지, 저희도 매번 고민을 하고 정리하고 또 바꾸고 하는 와중에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신촌문화관은 문화교류공간이다'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고, 신촌문화관을 만들기 전에는 주로 출장이나 여행을 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같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맛있는 음식과 커피, 와인을 마시는 것, 구석에 숨어 있는 전시장을 찾아 다니는 것 등이죠. 공간을 구성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곳에 담고자 했어요. 좋아하는 작가에게 전시 제안도 하고, 마켓도 열었어요. 우린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원했던 공간을 직접 만들고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을 실현한 거죠. 2층 카페도 처음엔 기성 커피 브랜드를 유치하려고 했어요. 방문한 사람들이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카페는 신촌문화관에서 이뤄지는 활동들의 로비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될 텐데, 역시 직접 해야겠다 싶었죠. '다른 카페와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 원두까지 직접 수입하자!'는 생각으로 이어졌고요. 큰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무모한 시도들이 하나씩 쌓여 지금의 신촌문화관을 채운 셈이에요. 요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모아놓았다는 거죠.

신촌문화관의 창작자 네트워크

주변에서 먼저 찾아와 이곳에 콘텐츠를 채워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고 문화를 생산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세요. 입주나 작업실 대여 문의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음악 만드시는 분들이예요. 신기한 일이죠. 입주를 위한 조건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잘 맞는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신촌문화관만의 네트워크가 조금씩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숙소가 되기도 하고 작업실로 활용되기도 해요. 이곳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사회에서 만났던 분들보다 좀 더 젊은데, 단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나 기운, 작업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젊은 분들이어서 굉장히 좋아요. 신촌문화관이, 프로의 세계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 준비한 것을 한번 미리 펼쳐보는 장이 되면 좋겠어요.



서대문구와 신촌문화관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시절만 해도 신촌, 이대 앞의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찬 곳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인근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외에는 부러 찾아오지 않는 지역이 되었더라고요. 저희는 채울 것이 많은 공간에 거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편안하고 질 좋은 커피를 파는 카페, 늘 무언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문화공간이 신촌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신촌문화관을 상상하게 했어요. 대학 시절을 여기서 보낸 탓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도 했어요. 성수동처럼 외부에서 많이 다녀가는 동네와는 지역 네트워크의 색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같은 서대문이지만 주민들에게 왜 이곳에 사시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이유를 말씀하시겠죠. 지역의 문화나, 분위기 등을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동네를 선택하게 만드는 고유의 캐릭터가 있기 마련인데 신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학교가 있어서', '오피스텔이 많아서', '위치가 적당해서' 등 단순히 이동편의 때문에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신촌문화관을 통해 '동네의 분위기가 좋아서'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 재밌는 곳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이에요. 이를테면 동아서점 사장님께 책을 추천 받아서 신촌문화관 2층 카페에 비치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책 선정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듣는 재미가 쏠쏠해요. 남이 고른 책을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좋은 커피를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절에 맞는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죠. 이곳이 임대사업인지, 전시장인지, 카페인지, 저희도 매번 고민하고 정리하고 또 바꾸고 하는 와중에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신촌문화관은 문화교류공간이다'예요. 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 편안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외지의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공간의 모습을 기대해요.

누구나 '나 학교 다닐 때, 단골 카페가 있었는데 말이야.' 하는 추억들이 있잖아요? 이곳을 언제까지 운영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지역 주민분들이나 인근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그때 신촌문화관이라는 데서 누구 전시 봤었잖아, 거기 커피가 참 맛있었는데'하는 기억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런 기억들이 신촌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되면 좋겠어요.



동네 어르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늘꿈 작은 도서관에는 레고방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놀기만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지켜본 바로는 책을 읽으러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오진 않는데, 레고하러 들렀다가 검사검사 책을 보기는 하더라고요.

놀이터, 찻집, 방앗간, 사랑방

하늘꿈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책도 보고, 차 마시고, 얘기도 나누는 공간이에요. 도서관이다 보니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주가 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별다른 제약이 없거든요. 공간도 널찍하고 말 그대로 열려 있는 곳인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률이 낮은 게 아쉬워요. 지난번에는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과 함께 하는 동네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시를 했어요. 주변 상가 점포를 전시장으로 쓰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주변과 더불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점차적으로 홍보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꿈 작은 도서관이 이 동네 사랑방이길 바랍니다. 부담없이 오셔서 자유롭게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관도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미리 공지를 하고 대관이 있는 날은 도서관 이용 관련 공지를 하면 되니까요.

코로나 시대의 작은도서관

하늘꿈 작은 도서관은 교회 건물의 한 칸을 쓰고 있지만, 입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곳이에요. 장서가 2000권이 넘어요. 주민들이 기부해주시기도 하고, 주변에서 알음알음 장서를 채워 주셨죠.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을 받기도 해서 책 규모가 꽤 있는 편이에요. 한창 코로나19가 퍼지던 2020년 5월에 개관했어요. 일단 만들긴 했는데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자마자 다시 몇 개월을 닫았죠. 2020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개관했고 올해는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확진자 수가 늘면 방문객이 뜸하고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조금씩 늘어요. 확진자 수에 따라 분위기가 매일 달라지는 것이 이 시대의 도서관 풍경인가 싶어요. 방문객이 적을 때는 도서관이 궁금해서 들르신 분들이 공간의 적막함에 부담을 느끼시는지 선뜻 자리잡지 못하실 때도 있거든요. 도서관이 북적북적한 모습을 유지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대문구와 하늘꿈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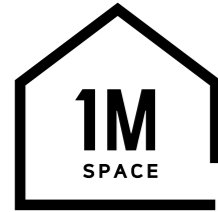
남가좌2동은 지역 주민의 평균연령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동네가 굉장히 조용해요. 명지대 앞 주택가에는 아이들도 많고 대학생도 많고, 활기가 있는데, 이 동네는 고요한 편이에요. 길 건너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 동네는 이곳에 오래 사신 노년층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해서 길 건너만 아파트가 생겼대요. 상가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입주하다 보니 길 하나를 두고 새 아파트 동네랑 이 동네랑 구분되는 느낌이 강해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의 커뮤니티가 잘 되어있으니 새로 이사하신 분들이 구도심의 주민들과 교류하는 움직임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엄마 손잡고 많이 와요. 토요일마다 엄마랑 함께 오는 단골 꼬마 손님도 있지요. 길 건너에서도 이곳까지 찾아오신다는 점이 반가워요. 이 공간이 저 새로운 아파트 단지와 구 시가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이동은 처음이지?

“남이동은 처음이지?”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남가좌동에는 신도심과 원도심이 혼재되어 있는데 하늘꿈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은 원도심에 해당해요. 신도심 쪽에 비해 침체된 느낌이 강하죠. 이 지역 상권을 주민들과 함께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이 지역에는 공방들이 꽤 많아요. 연희동, 연남동 등지에서 운영되던 공방들이 월세가 오르면서 이 동네로 많이 밀려오셨어요. 그런 곳들을 함께 살려보자고 하는 거죠. 공간을 빌려드리고, 여기 앞 골목에서도 모여서 행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기도 쓰고 도서관의 와이파이도 무료로 이용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업하는 분들이 아이들의 방학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해도 되느냐 하는 제안을 주시기도 해요. 마을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든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죠. 주민 대상 강좌를 이곳에서 연다면 강사를 지원하겠다는 구청의 제안도 있었는데, 아직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조심스러워요. 도서관이 교회 건물에 자리하다 보니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까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도서관에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있어요. 온가족 상영회 같은 것도 열고 싶은데, 코로나 시국에서는 모집하는 것이 어려우니 당장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긴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예술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제안을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대상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프로그램, 전시, 마을 행사들, 먼저 제안해주시면 너무 좋죠.



어떻게 하면 연극인들과 계속 즐겁게 놀 수 있을까?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만들었어요.
예술가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 작업할 수 있으면 결국 극장의 자생력도 커질테니, 선순환이 되는 셈이죠.



동아리방 같은 극장

제가 신촌에서 대학을 다닐 때 연극동아리를 했어요. 그 때 지내던 동아리방이 참 좋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접 만들어보자는 결심으로 2019년 11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아리방처럼 가볍고 쉽게 올 수 있는 편안하고 부담 없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초기에는 '일단 만들자'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연극과 극장의 공생관계

연극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고 노는 것이 참 즐거운데, 그걸 지속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처럼 직접 창작하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가들과 계속 놀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요. 그 분들이 우리 공간에서 즐겁게 놀고 작업할 수 있으면 결국 제 프로젝트도 늘어나게 되니 여러모로 긍정적이죠. 극장은 대관이 잘 되어야 공간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연극인들이 자생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극장 역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있죠.



서대문구와 1M Space

서대문구의 신촌문화발전소가 1M Space 근처에 있어요. 신촌문화발전소에서 주변 소극장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문의를 주시기도 해요. 운영 차원에서 구청 문화체육과와 공연장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죠. 또 연단위 운영 계획을 짜는 요령이나 극장 운영의 유의점 등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서대문구에는 아직 기초문화재단이 없으니까 개인 예술가들이 뭔가 마음을 두고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문화재단이 있다면 그 중심으로 정보가 모일 텐데 지금 서대문구는 누군가 총대 메고 발벗고 나서서 발굴해서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트워크가 절실해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딴냐

2021년에는 '아니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딴냐'라는 연극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일한 지원자격은 '해당 분야 경력이 5회 이하'예요. 신진예술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생력이 떨어지다 보니 사비를 써서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죠.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경력을 증명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해요. 열정이 충만하더라도 경력이 없으면 진입이 어려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우리 공간에서 신진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첫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됐죠. 올해가 처음이고, 끊기지 않고 해마다 개최하는 게 목표예요.



작은 브랜드가 공간을 마련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 함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마이크로 공유 소름이 이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마이크로 리테일, 공유 소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자' 라는 마음으로 한국, 중국, 미국에서 살던 세 사람이 연희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마칩 리테일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생기던 때였고요. 동네에 리테일을 위한 공간이 더 다양해지고 재밌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채식 음료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우리는 고객의 경험을 중시하는 공간 사업이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noncontempo'는 마이크로 리테일, 공유 소름 등으로 보시면 돼요. 한 장소를 시간과 공간 두 개념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으면 해요. 이곳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호기심을 주는 동시에 입주한 브랜드에는 영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이후로 작은 브랜드가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기 더욱 어려워졌어요. 공간을 얻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마이크로 공유 소름이 이 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이번 '리빙워크'가 상징적이라고 봐요. 18명의 작가들이 모작품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형식인데, 작가 한 명이 일주일 동안 이 공간을 변화시키고 채우며 진행돼요.



변화무쌍한 공간 'noncontempo'

앞으로는 더 많은 작가가 모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에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크죠. 공간 한 칸에 카페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에요. 가변적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공간으로 구성했어요. 협업에 적합한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가구나 벽들도 360도 회전하도록 만들었어요. 공간에 들어오는 브랜드나 개인에 따라서 마음껏 바꾸거나 기획할 수 있는 변화무쌍한 공간이죠. 공간 확장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는 차고를 개조한 공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이곳을 오픈했고, 이제는 또 다른 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오프라인 리테일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솔루션을 계속 연구 중이에요.

서대문과 연희동연구소

한남동, 이태원, 을지로 등을 떠올리면 캐릭터가 분명하잖아요. 연희동도 확실히 특유의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이렇게 차분한 주택 단지가 남아있는 곳은 이제 별로 없잖아요. 연희동은 좀 더 '동네'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리테일 공간의 재미있는 느낌을 살릴 수 있겠다 싶었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 동네는 다른 지역 분들도 구경을 많이 오세요. 연희동연구소는 연희동에서 시작했지만 연희동 너머를 꿈꾸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라는 지역에는 아마존과 스탠포드 대학이 한 지역에 있잖아요. 학교의 인재가 그 지역에 자리한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흐름이 있죠. 연희동연구소도 팔로알토처럼 서대문구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주변의 학교들과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일을 만드는 것을 꿈꿔요. 당장은 실현이 힘들겠지만요. 대학 때문에 이 지역에 와서 졸업 후엔 대부분 떠나더라고요. 저희는 서대문구 안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창업자들을 모집해 지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도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이곳이 청년들이 안착해서 살고 활동하고 작업하는 지역이 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행동들이 필요하겠죠.

good!thing
s./// * ~ ” /non'contem-po/ //
// ** ~ ” we::dis-cove
r-and're-arrange"good!



아저씨 여기 주말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여름철예요. 아, 어디 사세요?

사당 동작에 사는데 여기 물이 깨끗한가봐요.

네, 뭐 일급수죠. 원래는 경의선 철도가 있었어요. 이제 이것을 없애서 연남동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홍대까지 있어요. 공원을 잘 꾸며 봤어요 공원을. 그래가지고 이 철도를 없애고 경의중앙선 철도를 봤다 이거예요 중앙선이 40m인데. 옛날에 자갈 모래를 채취해서 팔았어요 어른들이. 한 40년 50년 전에. 지하철을 파면 모래 밑에 물이에요. 물이 고여요. 근데 그 40m지점에 물이 계속 고여요. 고이면 자동저장 장치로 퍼프가 40분 간격으로 차요. 그럼 물이 한...한 10도 이상 차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차요. 굉장히 시원해요. 어른들이 여름에 나와요. 서울에 이런 데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하니까 사람들이 덜 모인거고. 원래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죠. 굉장히 시원해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안산 쪽이고 안산 저기 물레방아. 근데 여기가 더 나아.

여기 사세요?

연남동 살아 연남동.

자주 오세요?

네, 나 말고도 용산에서도 오고 강남에서도 오고 그래.

근데 뭐 하시는 중이에요? 훌쩍 벗으시고.(웃음)

선댄. 여름부터 슬슬 태웠어. 현장 일 하느라 말랐어요. 노가다 하느라...



서대문엔 후일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임성연 저는 요즘에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월중행사계획’ 그걸 훑어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 지금 무슨 상황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파악이 돼서 좋더라고요.

이자경 거기에 없는 것도 많아요. 이번 주는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개관식 하거든요. 개관 기념 공연 있고, 다음 주는 또 독립민주 축제 때 연기됐던 게 있거든요. 중요한 행사인데 그거 하나 또 있고. 크리스마스 점등식이랑 이후에 크리스마스 행사도 있고 계속 주르륵 있네요. 저희 팀이 전체가 지금 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옥민아 저는 그때 서대문구 공간 인터뷰를 찍 하고 그다음 이제 서대문엔 참여주체와 프로젝트들 인터뷰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으로 1월 안에 완성해야 하는 영화도 있고요.

이정아 서대문엔 참여 주체 분들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이것 저것 하고 싶으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만드는 것 어디서 해야 하나, 내지용 종이는 뭐가 더 좋을까, 이런 것 도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키우는 화분들이 월동을 해야 해서 열심히 뽕뽕이도 씨우고 들여놨다 내놨다 들여놨다 내놨다 해요.

임성연 그러게요 지금 계절이 적응하기 어렵네요.

이정아 완전히 미리 들여놓으면 내년에 꽃이 안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위를 어느 정도 보지만 얼어 죽지 않게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임성연 계속 패딩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 아침마다 고민했는데, 이거 입는 순간 바로 겨울인데.

이자경 저는 어제 입었습니다.

2021 서대문엔 후일담 담당자
라운드테이블

2021. 11.24. 14:00-16:00
@ 카페 웰터 서울 서대문구 홍연길 82

임성연 저도 어제 입었어요. 이제 한동안 벗지 못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지역과 문화에
관심이 있었나요**

이자경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역문화’, ‘지역’ 이런 건 모르겠구요. 제가 여기에서 회사를 이제 10년 정도 다니고 있잖아요. 걷는 걸 좋아해서 다니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들,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 예쁜 것,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주게 된거예요. 그냥 알게 된거죠. 특별히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옥민아 저는 서울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살다가 대학 다니러 서울에 오면서 그냥 ‘이제 문화의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 나도 사는구나’라는 뿌듯함만 갖고 있었죠. 가장 유명한 데 있고 싶었어요. 제일 핫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나를 데려가 보는 게 중요했죠. 얼마나 멀든 상관없고. 나를 반겨주는지 아닌지 상관없고.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내가 사는 동네를 근거로 무슨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임성연 연희동에서 카페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장사는 동네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 커피를 사먹는지, 어떤 취향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엄청나게 꼼꼼하게 보는 거죠. 제가 공공미술을 전공했는데, 훨씬 더 예민하게 촉을 세워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장사인 것 같아요. 제 삶이 완전 변했죠. 어쨌든 나한테 필요하니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말도 되게 많이 듣게 되고요. 옛날에는 ‘뻘어, 끈대’ 이라고 안 들었는데, 이젠 계속 듣는 거죠. 혹시 그중에 쓸모 있는 말이 있을까봐.

이자경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일반 시민들도 우리가 억지로 뭐를 하게끔

참여자

옥민아 서대문엔 기록집 인터뷰어 / 공공연회

이자경 서대문엔 담당 주무관 /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이정아 서대문엔 PM / 무소속연구소

임성연 서대문엔 PM / 무소속연구소

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뭔가 메리트를 느끼고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아무리 구청이나 어디에서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 공짜이고, 좋으니까 해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참여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정아 저는 제가 동네 혹은 어떤 지역의 일부라는 느낌을 처음 받은 건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하면서예요. 평생 대단지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다가가 주택 많은 복잡한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요. 우체부가 오시더니 ‘이사 오셨어요?’ 하면서 이 집에 원래 살던 사람과 이름이 다르단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몇 동 몇 호가 아니라 집집마다 여기 누가 사는지 서로 알고 있구나 하는 게 첫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도보권 안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저 개인이 지역에 연결돼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동네의 문화라고 생각하게 됐죠.

임성연 서대문이 그러기 좋은 동네인 것 같긴 해요.

**올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가장 좋았던 혹은 짜증났던 순간?**

이자경 저는 서대문엔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페잇퍼**. 제가 예전부터 원래 알고 있었고, 좋아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제가 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표님도 만나고 그런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일로 연결되는 게 조금 불편한 느낌도 있어요. 이상하게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고 신분 밝히는 게 왠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 공간에서만큼은 신분 같은 거 모르게 하고 그냥 나오서 놓고 싶거든요.

임성연 문화체육과 기획팀에서의 1년은 어떠셨어요.

이자경 그냥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명확히 결정 못하고 질질 끌고 가야 하는 상황들이 답답하기도 했는데. 지난 독립민주축제 때 라이카시네마에서 영화제를 했거든요. 새롭게 알게 된 공간과 한 일들이 다행히 잘 끝났고. 지나보니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다 했더라고요. 남은 시간도 빨리 지나가서 뭔가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있음 좋겠다라는 생각이예요.

임성연 저는 공모를 했던 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두려웠거든요. 완전 모르는 사람들이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한 결이 아닌데도 받아들여야 하는지,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이 사업이 그냥 지원금 주고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모로 들어온 팀들이 너무 좋아서 괜히 걱정했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페잇퍼**도 그렇고 올해 처음 만난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같은 곳들은 서대문구만 대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전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 팀들이 우리의 설득을 받아주고 자리잡고 있는 지역에 한번 더 관심을 주고 함께 했을 때 그 짜릿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있나 봐요. 남들이 되게 좋다고 하는 그런 팀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정아 아, 저는 답장이 기억나요. 프로젝트로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동네에 글 쓰는 국어 선생님이랑 미술 작가가님이 계시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사리가마트에서 유정란을 보고 이게 진짜 유정란인가 궁금해서 부화기에 넣었더니 그만 병아리가 된 거예요. 개네들이 무럭무럭 닭으로 자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니까 그 미술 작가가님이 자기 집 옥상에 닭장을 짓고 데려가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님이 옥상에서 쪼그려 앉아서 나무 썰고. 닭장을 무슨 설치미술 작품처럼 만드시고는 닭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처럼, 본업이랑 상관없이 지역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재밌는 일들을 사업을 통해서 더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해요. 이 사업에서 개인적인 작업을 하려고 접근하진 않으시거든요. 뭔가 다른 해결방법을 생각하려고 계속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옥민아 제가 **1M SPACE**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공연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올해 연락을 했더니 대관이 연말까지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 사실 공연이라고 하면 서대문구에서 무언가를 할 생각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대학로가 아니더라도 지역 안에서 충분히 소비가 되고, 사람들은 기꺼이 찾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장 일주일 전에 연락해도 일정 비어있으니 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몇 달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도 다 ‘연말까지 다 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는데 웬지 모를 뿌듯함 같은 게 들더라고요.

이정아 하나 더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서대문엔 참여자분들끼리 저희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건책방**에서 하는 마켓에 **개념프로젝트** 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한테는 말도 안 해주세요.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뭘 하고, 산책도 같이 가시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데요. 이 사람들이 일로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뭔가를 해볼 만한 사람들의 풀(pool)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임성연 그랬구나. 몰랐네요. 우리한테도 얘기 안 해줄 줄 몰랐어

**지금 서대문구의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어떤가요?**

임성연 작년에는 거버넌스라는 단어로 많이들 질문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는 유행 지나서 쓰지 않는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2021 연희아트페어** 보면서 다시 한 번 느꼈지만, 이 동네 미술 장르는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미술 장르만 생각하면 네트워킹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동네인 것 같아요. 연희아트페어는 행사를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고 싶고 지원금도 받지 싫대요. 필요한 건 리플렛 인쇄하고 현수막 다는 돈 200만 원인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지원서 쓰고 정산하고 하는게 너무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인쇄비 200만원이란 애매한 금액을 주는 지원사업도 없어요. 보통 전시 지원은 500부터 시작하니까. 연희아트페어 활동을 보니까 이거는 이미 완성된 네트워크더라고요. 지역 주민들도 엄청 많이 왔어요.

이정아 신촌문화발전소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대문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저희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싶어요. 그 보틀넥토리에서 주관하는 보틀워크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네트워크가 정말 탄탄하시잖아요. 서대문엔이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연결을 서로 조금씩 걸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자경 장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공연은 공연장 같은 데 네트워크가 있겠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오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자기들만의 연대가 있을 거고. 모든 만남은 공간에서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들긴 하더라고요

이정아 네트워크는 다 있지만 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서로서로 아는 사이, 누구 친구,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 사업이 서대문엔이라는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인 거죠. 그랬을 때 이미 여기저기 있는 네트워크들을 연결할 수 있는 호명이 가능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 사회라는게 네트워크가 없는 사회는 없지만, 거기에서 누구를 뭐라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명명이 필요한 일인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자경 결국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 안에서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흔히 자생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자는 거잖아요. 좀 길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도 시작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아는 사람이 이것뿐인데 어떻게 해요.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만 점점 넓혀가는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또 다른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면서요. 어쨌든 정아씨 말씀하신 대로 사람 사는 데 네트워크는 원래 항상 있는 거고, 예술가들도 거기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모양을 바꿔가면서 계속 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임성연 많은 예술가들이 학교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어요. 선배가 후배 그냥 불러다 막 쓰고 교수님이 학생 불러다 쓰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끼리 뭔가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질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상대방이 됐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자경 어쨌든 일을 할 때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찾는 게 되게 난감할 때가 많아요. 뭔가 난감한 상황에서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의 느슨한 네트워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지역 안에서 좀 넓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옥민아 네트워크는 결과적인 일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사진 인화하는 것처럼 상이 이렇게 나오는. 들여다보니 여기 있구나 하는 거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 결국 어떤 이름을 가지는 네트워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이름을 열심히 불러주면 그게 명성을 얻게 돼서 힘을 가지게 되는거죠. 그런데 그 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아니라 전에 얘기했던 고구마 즐기처럼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되는 거죠. 어디서 누가 뭐 하는지 찾을 때 제일 위에서 뽑을 수 있는 그 이름들을 알게 되는거. 대부분의 팀들이 하시는 걸 보면 그 분들이 원래 하고 있던 활동이었어요. 서대문엔을 통해서 팀 이름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모집할 때도 한번 다양한 방법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제대로 자기들만의 도구를 갖추려고 제작도 해보고 하면서 풀이 더 갖춰지는 거죠. 인터뷰 하다보니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서대문엔의 가치인가보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임성연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 정도의 개입이 사실 딱 좋은 거죠

이자경 하다가 또 본인들도 흐지부지 될 수 있는 활동들을 부스터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이정아 이번에는 저희가 뭘 대신 해드린 게 없어요. 원하는 형태의 인쇄물을 발주하는 정도의 일만 도와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들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원금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걸.

이자경 지원금에 대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원금은 100%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할건데 부족한 부분이 이정도야’ 했을 때, 이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주체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이제는 우리만으로도 충분해’라는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 그게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요.

임성연 예전에는 지원금을 갑자기 들어온 공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원금을 쓰면 쓸수록 그게 다 일인걸 알았어요. 백만 원 받으면 백만 원만큼 일이고, 천만 원 받으면 천만 원만큼 일이고. 더 이상 지원금 안 받고 싶더라고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서 일만 많아지는 거라는 원리를 파악을 했는데, 그거를 다른 분들도 이번에 좀 느끼신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작은 돈으로 집중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 모를 때는 어디가 무슨 예산 받아가지고 80억이래, 80억 나왔대 그러면 우와, 이랬는데. 이제는 80억 어치 일할 생각 하면 어휴.

이자경 그렇죠. 그거 정산할 생각 해 보세요. 하나하나 지급하고 정산하고.

이정아 다 했는데 또 막 재네 왜 80억 받았대 이러면서 수군수군하고

이자경 80억 받아서 겨우 이거 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서통발랄과 서대문엔

임성연 이번에 **서통발랄** 전시하는 걸 보고 왔어요. 이미 올해는 합쳐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업의 이름만 다를 뿐이고 이미 많은 부분에 합쳐져 있지 않나.

이자경 서대문엔에 본업이 예술가인 분들이 주로 활동하시긴 하지만, 서통발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어느 부분 겹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는 지원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 사업을 이해하는 것 자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용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이정아 이번에 공모 받으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관점’이거든요. ‘내가 서대문에 살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일단 지원해’라는 분들과 ‘나는 여기에 이런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 같이 해보자’라는 그 차이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는데. 그건 어떤 장르의 활동이든 어떤 기술을 연습하는 거든 지역을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이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지원해달라는 건 좀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그게 지역 문화인가라고 했을 때도 물음표가 되게 많고. 그건 어떤 주민의 복지에 가까운 거잖아요. 문화재단의 사업 영역에는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속.

이자경 이게 분야가 다르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괄적 지역 문화라고 하면, 그 향유의 방식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찾고 연결하고 이런 지원이 성격이 다르죠. 그걸 N개의 서울에서 어디까지 떠안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정아 또 무소속연구소 입장에서 생각했을때, ‘우리는 그럼 뭐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청 입장에 서서 생각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컨소시엄이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서로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항상 남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객관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입장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안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자경 근데 무소속연구소의 역할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어떤 취미활동이나) 연습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면 이 단체의 성격과도 안맞고, 너무 재미없어지실 거예요. 하기 싫어지실 걸요.

임성연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까운 은평에도 예술가가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서로 교류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은평구랑 서대문구 작가들 사생대회나 달리기시합 같은 거 해볼까 싶어요.

이자경 원래 올해 계획하시지 않으셨어요?

임성연 잠깐 얘기만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서대문엔 사업 전체가 너무 착하잖아요. 약간의 그런 재미, 위트가 들어가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관점 같은 것도 튀어 나올 것 같고.

이정아 저는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경쟁이 됐을 때 민아 작가님이 아까 말한 ‘인화되지 않은 네트워크’가 확 올라올 것 같거든요. ‘와, 여기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있네’ 이게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임성연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기획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N개의 서울이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 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착한 기획들만 나오거든요. 이게 서대문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구가 다 너무 착한 기획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한다든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걸 5년이나 했는데, 이제 다들 재미없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이란 건 그렇게 재미없지 않은데.

옥민아 진짜 오래 가고 제일 끈끈하고 강렬한 네트워크는 조폭이잖아요.

임성연 이익공동체

이정아 상인협동조합

옥민아 서로 싸워야 해요. 그래야 진짜 끈끈하잖아요.

임성연 맞아요. 파벌로 싸워야지.

이자경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처럼 드라마가 생기는 거죠.

이정아 은평 얘기해서 생각난 게, 작년에 함께했던 **미닝오브**와 **씨더센**이 은평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럼에도 저희랑 계속 교류가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권에서는 서대문과 은평이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나뉘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점들을 내년에 발견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어요.

임성연 그러게요. 그래서 은평에서 하는 아트페어 기간을 **연희아트페어**와 조율해서

맞춘다거나, 그런 것 부터 한번 제안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대문에서 좋아하는 산책 코스

이정아 저는 **홍제천**. 우선 평지고요. 내가 여기를 따라가면 지하철 역도 가고 은평도 마포도 다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안전한 길을 알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비를 안 맞고 걸을 수 있다는 점.

이자경 저는 구청을 중심으로 연희동 골목 골목을 걷는 걸 좋아하고. **연희동 주민센터** 뒤에 그 주택가 골목도 좋아해요. 걸어서 그냥 계속 돌아요. 이렇게 쪽 궁동산 올라가는 골목 쪽에 예쁜 집들 많은 것도 좋고. 저도 홍제천도 좋아해요. 거기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집에 가는 길에 걸으면 햇빛 질 때 자화상이라는 그림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석양이 비치는 그 그림.

옥민아 저는 **바람산 어린이 공원**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는 길에 서울에 하나밖에 없다는 야외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되게 짧은 구간이지만 홍콩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밤에 가면 저는 그게 되게 괜히 좋아서 그냥 타고 올라가요.

임성연 저는 **연희맛로**로 해서 연남동까지 걷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연남동 오랜만에 한 번씩 한 번씩 가면 요즘에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서 좀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요. 최신 유행이 어떤가 요즘에는 뭘 먹는구나 뭘 마시는구나 옷은 어떻게 입는구나 이런 것들 체크하러

이자경 연남동 기차길 쪽 따라가면 거기 서점이랑 음식점이랑 예쁜 데가 너무 많아요.

임성연 그렇게 산책하다가 새로 나온 빵집 같은 데서 빵 사가지고 돌아가면 되게 부자 같아

이자경 종이봉투에 들어야 되죠 비닐봉투에 담아오면 안 돼. 종이봉투에 들어야 돼

마지막 한마디해주세요

임성연 저 이것밖에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포럼이 잘 끝나야하는데. 의미가 뭐든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간 종합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하는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 지역문화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자리니까 부담도 되고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계속 맴돌고 있어요.

옥민아 저는 내년에 좀 더 공모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사부작사부작 참 재미있게 산다는 걸 느꼈거든요. 더 많은 재미있는 팀들을 발견하면 더 다채롭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모 많이 지원하시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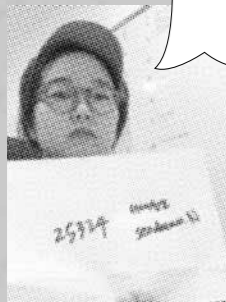
이자경 일단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서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5년 차 지나고 (이야기들이) 계속 쌓이면서 드러나는 형태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아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트워크는 그냥 이미 있는 거고. 그 분들과 어떻게 재밌게 친구가 되는가가 중요했거든요. 그 친구들과 또 내년에는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지역문화를 다지기 위한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사업이 5년차가 되었다. 당연하지만 사업 시행 전에도 동네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어서 제멋대로 자라고 있었다. 우당탕탕 결론 내지 못한 논의와 해소되지 못한 욕망이 쌓여가던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서대문엔 프로젝트는 '아 그래, 뭐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다면 그냥 냅다 관통하고 흐르게 두지 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움직이는 동네문화의 물질을 찾아 맥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하는 투박하고 허술한 기획 아래에 '흐르는 네트워크'라는 부제목을 달았다. 매일 아침 확진자 수에 따라 바뀌는 정책적 지침과 셀 수 없는 자기불신, 의심의 눈초리들 속에서 참여주체들이 보여주신 성실함과 서대문구의 상호신뢰, 서울문화재단의 호의적인 배려를 통해 어찌저찌 2020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모두 환호했다. 이야, 이게 된다!

동네에서 제일 이상한 일만 하는 사람들을 모아 둔 네트워크들의 이름을 찾아내고 호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짚어낸 흐름은 새로운 인연을 끌어왔다. 아니 이 멋진 분들이 여태 어디 계셨나요 만나서 정말 기뻐요. 제철고구마처럼 줄줄이 깨 올린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한 번 '서대문엔'이란 이름을 걸고 2021년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는데, 2020년은 정신없던 첫 해라서 얼레벌레 끝났다 해도, 이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이 모든 당사자에게 메아리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역문화라는 게 뭐지? 일상적 예술인가? 예술적 일상인가? 일상과 예술은 뭔데? 이걸 예술이고, 이걸 취미야? 무슨 차이지?"



“안녕하세요! 서대문엔 PM 이징아입니다. 선생님들 부디 개인 카톡 말고 단독방이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 네, 주말이나 한밤중에 전화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면 연락 주세요. 아 네네, 그럼요. 네.”

인스타그램 계정명에서 인종권 사진

쉴 틈 없이 첨단으로 유행으로 몰아치는 전문가들의 세상에서 살짝 비켜 서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일을 바라볼 때에는 저절로 호흡이 느려진다. 작년과 올해 연말이 서대문엔 참여주체 인터뷰를 진행해준 공공연회 옥민아 작가의 말처럼, 지역의 일들은 '현상액에 담갔다 꺼내보니 인화지에서 상이 맺히듯이'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다들 생업이 있고, 이 사업은 참여자에게 본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업도 아닌 일을 진심으로 하는 과정의 모든 것은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수도 없이 부딪히며 지나왔다. 어떤 곳은 프로젝트 이름이 열 번도 넘게 바뀌고, 어떤 곳은 처음 시작점과 전혀 다른 곳에서 끝나기도 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11월이 되어서야 무소속연구소와 서대문엔은 앞서 말한 모든 질문에 대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a point of view)”과 “연결하고자 하는 탐구심”의 유무라는 답을 내린다. 과정의 방법론이나 결과의 장르적 형태보다는 고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이웃들을 기웃거리며 서로의 생각과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고자 하는 관계의 의지를 우선에 두고 #서대문엔을 진행해왔다는 결론이다. 그걸 또 우리끼리만 결론 지으면 어쩐지 공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쉬지 않고 사유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무대 위에 줄 세우고 '서대문에 대해 평소 생각했던 것들 좀 다 말해보세요!' 하는 포럼으로 객관과 당위를 찾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간단체 입장에서 모호한 공공성을 품고 있는 사업에 뛰어들며 시작한 무한대의 자기검열도 이제야 끝이 보이는 것 같다. 후! 하! 수미상관의 미덕을 위해 이 노래를 한 번 더.

산책길을 떠남에
으뜸가는 순간은
멋진 책을 읽다 맨 끝장을 덮는 그 때-
이를테면 <봉별기>의 마지막 장처럼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굽이 굽이 뜨내기
世上그늘진 心情에 불 질러 버려라”

- 속아도 꿈결, 가을방학, 2010 -

정산 때리고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는 자유의 원예 타임>을 가질 상상에
행복한 사람이 씀.



'N개의 서울:서대문엔' PM을 처음 맡았을 때에는 코로나19가 3년간 지속될지도, 2021년에도 여전히 프로젝트 방향과 무소속연구소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게 될 줄도 몰랐다. 그때는 도시가 락다운 되더라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최소 인원의 살롱 활동을 지원하며 아쉬운 대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1년쯤 지내다가 다시 좋은 세상이 오면 재미있게 만나자고 계획했었는데, 3년이 흐른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인원끼리 활동하고 줌으로 어색하게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허탈한 마음이다.

중간지원조직도 아니면서 공공인척 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색해 원래 무소속연구소 스타일로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상상도 해보지만 결국 사회적 자아가 예술적 자아를 이기고 만다. 그렇다면 다른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그리고 비록 만날 수 없더라도 딱 한 가지, 의미를 모을 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했다. 그 동안 서대문구에 있었던 '지역문화'라는 타이틀로 일어난 여러 사업을 다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서대문엔 지역문화 포럼'을 기획했다. 서대문구에 살면서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기에 생소하지 않은 것들이었는데도, 예전 서류와 SNS를 찾아보고 당시 담당자들과 옛날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든 순간이 나비효과처럼 지금의 서대문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당시에는 호불호가 있고 찬반 의사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무언가를 하는 곳은 그나마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가 생기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으로 발전하는 변화가 있었다. 모두 의미 있었는데 미처 모르고 지나갈 뻔 했다.

올해 서대문엔에 참여한 21개의 살롱들, 지금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아주 소소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5년 뒤에는 어떻게 재평가될지 상상해본다. 나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모두 문화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가 안부를 묻는 사이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임성연

서대문엔

주최 서대문구
주관 무소속연구소
후원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서대문엔 매거진 2021 vol.01

발행일 2022. 02.
발행처 데이워크
기획 무소속연구소
인터뷰 공공연희
편집 이윤지
디자인 theywork.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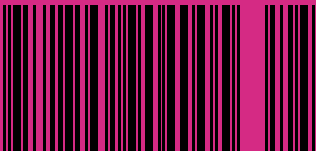
©서대문엔 매거진

ISSN 2799-9041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 일러스트와 레이아웃은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저작권자인 데이워크 · 무소속연구소 양쪽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전체 또는 일부를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www.musosoklab.com
문의 hello@musosoklab.com

9772799904005 25



ISSN 2799 - 9041